

* 팀NO : 2018- 10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1)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명칭 : 인도네시아 (이람) 공항 : 가루다 공항

*항공원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인도네시아 노바랑 (학교 1팀)

3. 사역기간 : 2018년 4월26일(목) ~ 5월 4일 (금) / (8)박(9)일

담당

분과장

위원장

하88등
3/4

김영환

이상석 4/1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회사	박정혜 PARK JUNG HAE	7	0	05-94		여			
2	총무	"	김남희 Kim Nam Hee	7		89-42		여			
3	서기	"	정태순 Jeong Tae Soon	1		82-50		여			
4	회계	회사	박은주 PARK Eun Ju	7		82-53		여			
5	의료	"	이인숙 Lee IN Sook	7		94-10		여			
6	찬양	재민	나창희 Na Chang Hee	7		04-052		여			
7		회사	강민우 KANG SUNGEUN	1		2014-0112		남			
8											
9											
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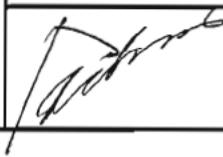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무슨일을 하는 그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역은 감당할까?
 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려진 바였었다.
 하지만 선교는 주님이하시는 것이므로 기도하며 령혼령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왔다.
 스바랑. 마라. 주석나. 음방 그 지역에서 심방사역을 하였다. 성도들의 정은 믿음 하거나 중. 고등
 학교 사역을 하였었는데 환경을 초월하고 꾀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하고있는 그곳의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을 볼 때 저 힘이 허리에서 나뉘어 나왔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씨앗을 그곳에 뿌려 놓으시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느꼈다.
 그 머릿속으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였을까?
 란에 주님의 크고 위대한 사역에 감동과 전율이 느껴졌다.
 일단 성도들 대부분 성령충만 하였고 뜨거웠다. 열악한 환경, 꾀마 가운데에서도
 마오 없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과 직접 만남처럼 보였다. 전제하고 충만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되었다.
 특별히 중. 고등학교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희망을 보았다.
 정부의 관용으로 종교 서클 활동이 가능하였고 종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하나님은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
 그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복음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참으로 희망적일 것이다.
 그 영혼들을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저리에 관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천국어둠에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한 장엄한 역사에 감사와 영광은 드립다.

소 감 문

1. 선교부서 : 7교구 / 팀장 박정혜권사
2. 선 교 지 : 인도네시아 스마랑지역
3. 선교일정 : 2018. 4.26(목)~5.4(금)
4. 작 성 자 : 김남희 권사(89-420)
5. 내 용

이슬람권과 미종족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기도했는데 교구에서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맘에 감동이 와서 신청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내가 생각했던 이슬람권과 다른 인상이었다.

짧은 히잡을 쓴 여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활기찬 그런 분위기임에도 외국인들이 직접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인구가 2억4천만 중에 이슬람교 87%, 기독교가 약15%라고 한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을마다 작은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현지교회를 통해서 심방사역과 두곳의 학교를 다니며 308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저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엔놈목사님 아르띠목사님 에스겔목사님 토마스목사님, 땀불목사님등등 그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예수님 모습과 같아 보였다. 이슬람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성도들 인데도 밝은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습들이나 자신을 보게 하였고 회개하게 하였다.

리림 자매님도 전도한 분을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남편 구원을 간절한 기도제목을 내놓았다.

시스카 자매님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셨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떠냐고 물을때 밝은 얼굴이 금새 어두워지며 친지와 친척중심으로 살라가는 이곳에서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공감이 되었다.

4월29일 주일저녁 초청잔치에는 80명이 모였다.

강성은목사님의 뜨겁고 열정적인 말씀에 은혜받고 저희들이 준비한 현지 음식과 잡채를 먹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의 기도와 작은 관심이 현지인의 목사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소통이 잘 되면 인도네시아도 기독교인이 50%가 곧 되겠다는 소망을 품어 보았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가까이서 접해보면서 참 선하고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기가 만난 308명을 기억하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것을 다짐한다.

7교구 인도네시아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꿈을 이룹시다.“끝”

선교 소감문

7교구 1팀 이인숙 권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절)

인도네시아 스마랑 땅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에 가서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시는 현지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한분만 바라보며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으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신앙심을 볼 때 이 땅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전파는 허용되지 않고 복음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전파하게 되었으므로 현지인의 도움 없이 복음전파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현지인들은 현지 목회자들 보다 우리 선교팀의 복음전파를 선호, 무슬림 가족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동력하였다.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무척 사랑스러웠고 믿은 그들이 무슬림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그들을 통해 알게 하셨다.

부족한 저희들을 그 곳에 보내주셔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인도네시아 선교 후기문

제 7교구 3목 4순장

집사: 나충희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기 보다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 경험,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 하심에 순종하여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만 붙잡고 동행하는 권사님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에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신학을 공부 하지도 않았고,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알수 있는데?

라는 저의 부족한 믿음에 대한 죄책감(?) 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인도네시아에 도착
하기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마10:29) 하신 말씀중 두려워 말라는
말씀만 뚝 떼어 두려워 말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인도 하심 따라 순종 하겠습니다.

선교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시간여 비행하는 동안 내내 기도 하면서 나를 담대하게 자카르타에 도착,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Transfer 하여 1시간후 스마랑에 도착 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뿌지전도사가 마중나와 우리를 Pick up 뿌지전도사가 사역하는곳으로
안내 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지나치며 만나긴 했어도 직접 대면 하긴 처음 이었고,
모두 밖에 까지 나와 환영 해 주는 모습에 은혜스럽고, 감사 했습니다.

도착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웬지 청년들의 표정이 어두운듯 보여 약간 황당 불안
했는데, 강성은 목사님 설교와 그들의 찬양이 이어지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다시 밝
고 환한 모습을 보여, 와락 끌어 안고 예수스 명아시 안다. 프리마까시 반약.
하면서 선교는 시작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죽어라 외우고 갔지만 예수스 명아시 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외에 특별한 말이 필요치 않았던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출발 했던 하루가 지났고,

이튿날 아침 6시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 현지교회와 목사님을 심방하고 목사님에 속한 성도 6~7가정을 심방.

즉 스마랑에서 반동안. 에서 빠디, 에서 주완아, 에서 롬방지역까지 8곳의 교회와 8분의 목사님과 300여분의 성도를 심방하던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 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에 은혜의 눈물을 쏟고,

강성은목사님의 적재적소에 꼭 맞는 놀라운 설교 말씀에 눈물을 쏟고,

성령님 역사하심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8박9일 동안의 모든 사역이 눈에 선 하지만,

토마스목사님 위암 투병중 이신데 오토바이를 타고 성도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던 모습과,

무슬림성전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르디목사님교회는

주일에 교회문 열어놓고 성도들을 기다리는 목사님과 교회에 돌을 던진다는 간중에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아프던지,(다른지역 무슬림들은 그렇게까지 고약하지 않은듯 순한무슬림도 있었음)

주일날 오전7시 엔노목사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4시 목사님 댁에서 총동원집회를 할시 80여분의 성도가 모여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만났고,

준비하시느라 온 집안을 새로 셋팅 하다 시피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놓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뻐 하시며 카페를 꾸민다시며 웃으시던 사모님의 모습,

무슬림 이었던 가족중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후 남편에게 펄박 중 이라는 엔노 목사님 간중,

그남편의 걱정스런 표정으로 총동원집회에 임신한 딸과 가족을 데리고 참석해준 놀라운 모습들 등등

우리 선교팀을 도착부터 출발하는 마지막 8박 9일 동안 고르지 못한 길을 운전으로 안내해 주고 통역해 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운전중에 눈꺼풀이 내려와 참을 수 없어 면봉으로 눈꺼풀을 말치고 싶다고 해서 우리를 한바탕 웃게 했던 뿌지전도사가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신 충현교회와 한규삼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신 강성은목사님 사랑하며, 감사 합니다.

동행했던 박정혜팀장님, 김남희, 이인숙, 정태순, 박은주권사님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8년 5월 13일

< 인도네시아 1편 >

백영진 3A

"송재진 선생님"

기초 노방 지도나 강의 여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노방지
A매치 상봉하시던 가정들을 지역 목사님과 함께 상봉
A매치를 해 주셨습니다

목회장이 거의 90%에 가까운 나라에서 예도리드들을
구주로 인도하여 살아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서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삶이었지만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감동유대감을 형성하며

회리의 상봉을 인지하게 되기 감사했습니다

회리인들은 연대들의 방목으로 힘을 얻고 지리관들로는
그들의 풍부한 신앙의 힘을 통해 도전을 받고 더욱

목회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장의 편백이 강한 지역도 있어 지역목사님이 애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주이우회 주신데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말씀생활 하는 그와중에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들을 회회로 정회기 증명하는 활동들이
회남들이 부족한 지회들을 통하여 회남의 내외 협력을
이웃성을 높게 되었습니다

이 지회처럼 우리나라이기도 나라사의 부족함. 연합함으로
목회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더욱 정성있게
나눔을 나누고 선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